

□ 정부시책 □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에너지정보 가득

우리나라 에너지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고 빠르게 구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산자부 홈페이지의 정책안내 메뉴에서 자원·에너지분야를 클릭하면 된다. 에너지정보와 관련 산자부는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심의관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에너지업계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전력산업민영화와 관련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란 메뉴를 새로 추가했다.

산자부의 정책중 에너지융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에너지관리 공단의 홈페이지에는 에너지절약종합·에너지 효율정보 등 에너지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기술정보·설비정보·질의응답 등으로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 에너지 D/B는 산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으로 추진되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Inno-NET)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이므로 Inno-NET 사이트를 입력, 분야별 D/B 서비스중 에너지절약 D/B를 클릭하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공단은 또 최근 「에너지상품정보 2000」 발간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비, 상품정보 메뉴를 만들고 이 정보를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수요전망과 에너지동향·현물유가동향·에너지통계정보 등을 알고자 했을 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사이트로 들어가면 원하는 정보들을 구할 수 있다. 에경연은 에너지분야와 관련된 전문연구 실적 등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을뿐 아니라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들도 모두 취합, 거의 실시간대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방문하면 산업용 고효율 집진장치 개발 등 R&D와 관련 각종 기술과 장치 개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 < 국 내 기 관 >

기 관 명	검 색 사 이 트
산업자원부	<a href="http://www.mocie.go.kr">http://www.mocie.go.kr</a>
한국전력공사	<a href="http://www.kepco.co.kr">http://www.kepco.co.kr</a>
대한광업진흥공사	<a href="http://www.kores.co.kr">http://www.kores.co.kr</a>

기 관 명	검 색 사 이 트
한국석유공사	<a href="http://www.knoc.co.kr">http://www.knoc.co.kr</a>
한국가스공사	<a href="http://www.kogas.or.kr">http://www.kogas.or.kr</a>
에너지관리공단	<a href="http://www.kemco.kr">http://www.kemco.kr</a>
에너지경제연구원	<a href="http://www.keei.re.kr">http://www.keei.re.kr</a>
한국가스안전공사	<a href="http://www.kgs.or.kr">http://www.kgs.or.kr</a>
한국전기안전공사	<a href="http://www.kesco.or.kr">http://www.kesco.or.kr</a>
한국지역난방공사	<a href="http://www.kdhc.co.kr">http://www.kdhc.co.kr</a>
한국전력기술(주)	<a href="http://www.kopec.co.kr">http://www.kopec.co.kr</a>
한전기공(주)	<a href="http://www.kps.co.kr">http://www.kps.co.kr</a>
한국자원연구소	<a href="http://www.kigam.re.kr">http://www.kigam.re.kr</a>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a href="http://www.kier.re.kr">http://www.kier.re.kr</a>
한국원자력연구소	<a href="http://www.kaeri.re.kr">http://www.kaeri.re.kr</a>
한국전기연구소	<a href="http://www.rose.keri.re.kr">http://www.rose.keri.re.kr</a>
대한전기협회	<a href="http://www.kepic.or.kr">http://www.kepic.or.kr</a>
한국원자력문화재단	<a href="http://www.okaea.or.kr">http://www.okaea.or.kr</a>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	<a href="http://www.racer.or.kr">http://www.racer.or.kr</a>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a href="http://www.innonet.ne.k">http://www.innonet.ne.k</a>

〈 국 제 기 구 〉

국제에너지기구(IEA)	<a href="http://www.iea.org">http://www.iea.org</a>
세계에너지협의회(WEC)	<a href="http://www.wec.co.uk">http://www.wec.co.uk</a>
세계에너지효율협회	<a href="http://www.weea.org">http://www.weea.org</a>

## 산업자원부, IEC간사기관 29곳 지정

국제표준화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등 29개 기관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간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일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 기구인 IEC 183개 전문위원회(TC/SC)에 29개 기관을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간사기관의 역할은 관련 업계의 국제규격에 대한 의견 수렴, IEC 국제규격 제·개정을 위한 투표 참여, 국제표준화 관련 기술동향 파악 등. 기술표준원은 IEC가 운영하고 있는 189개 전문위원회 가운데 178개 위원회에 산업기술시험연구원 등 27개 기관을 간사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왔으나 기술 여건과 국제규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제표준화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술표준원은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집적회로 간사기관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을, 연료전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을 선정하는 등 6개 전문위원회를 제외한 183개 전문위원회에 29개 기관을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내간사기관을 중심으로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국제규격의 흐름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

번 국내간사기관 활성화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전략을 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 《참고》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지난 1908년 10월 전기전자기술 분야에 있어 표준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기술전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6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3년 가입했으며 현재 기술표준원이 대표기관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IEC 표준 규격을 각 회원국의 국가 규격에 일치하도록 요구한다. 기술표준원은 KS규격을 IEC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국제규격 부합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 불법 KS제품 인터넷 접수

앞으로는 불법·불량 KS표시제품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지난해 7월 KS표시허가제를 민간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한 이후 불법·불량 KS표

시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에 접속한 후 '불법·불량 KS신고마당'을 클릭해 신고내용을 올리면 된다.

## 중소기업청, 해외인증 지원사업 '위력'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규격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작년 11월에 정부지원자금을 받아 올 상반기까지 해외 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한 200개 중소기업의 수출 및 수입대체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업체의 78%인 156개 업체가 신규로 2억9400여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특히 현재 수출주문을 받고 상담 중인 업체가 71개 업체에 1억750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업체의 전체 수출유발효과는 4억6900만달러에 달하며 그동안 대만 등지로부터 수입에 의존했던 전기·전자 등 기초부품에 대한 인증마크 획득

으로 250만달러의 수입대체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규격별로 수출성과를 보면 유럽연합의 단일 규격인 CE마크의 경우 118개 업체가 인증마크를 획득, 총 1억1953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9669만달러의 수출상담이 진행중으로 다른 규격을 압도했으며 미국 UL은 30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 수출계약 체결액과 수출상담 진행액이 각각 5835만달러와 3943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 자동차 및 관련부품 규격인 QS9000의 경우는 23개 업체가 총 794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미국 FCC가 7개 업체 1439만달러, 독일 VDE가 9개 업체 916만달러, 일본 JIS가 2개 업체에 789만달러, 독일 TÜV가 2개 업체 313만달러, 스웨덴 SEMKO가 1개 업체 270만달러 등이다.

## 중소기업청, 기술경쟁력 갖춘 기업 우선지원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자금 및 기술지원을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9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평가를 실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이나 기술지원시 우대를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은 경영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에는 5점의 가산점이 붙으며 한국산업은행 총액한도대출 추천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산업은행이 조성한 특별지원자금 500억 원을 금리 7~8%(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에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에 0.5%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난 5월 조성된 21억원의 엔젤투자자의 투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술경쟁력 평가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현재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청은 올해 1100여개 중소기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생산화능

력, 기술경쟁력 성과 등 기술시스템에 대해서 실시된다.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기술에 대한 권리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수준도 평가하게 된다.

이번 기술경쟁력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월 1일~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각 지방중기청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지방중기청을 방문하거나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새소식)에서 '기술경쟁력평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평가는 10월~11월 사이에 실시되며 평가결과 는 연말에 이뤄진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평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력 우수기업을 육성하게 됨은 물론 기업의 기술평가 환경을 조성, 담보 및 보증위주의 대출관행이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전환되는게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청, 수출현장 지원사업 수출증대 크게 기여

중소기업청이 퇴직 수출전문인력을 파견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수출현장 지원사업이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기청은 현재 운영중인 11개 지방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7월 동안 일

평균 500여명(연인원 7만8천명)의 수출전문인력을 1천여개 중소기업에 3~6개월간 지원. 내수부진을 수출로 극복하려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신규 해외시장개척 및 바이어 발굴을 통해 상당한 수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지역별 참여인원을 보면 서울지방이 일평균 15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방(100여명), 부산·울산(60여명), 대구·경북(50여명)이 다음 순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파견인력 970여명 중 41명이 지원기업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했으며 참여 신청자 1500여명 가운데 파견기간중 또는 종료후 다른 기업에 채용된 인력도 226명

으로 수출전문가 등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가 꾸준함을 나타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 수출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수출지원정책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청, 우수인증제품 정부·공공기관 수의계약 납품

앞으로 GQ, NT, EM마크 등을 획득한 중소기업제품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GQ)와 NT(New Technology), EM(Excellent Machinery·Mechanism·Material)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보장과 기술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

정,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이 우선구매를 요구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수의계약 대상에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기 어려웠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적기에 간소한 절차에 의해 구매할 수 있게돼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철도청, 전기철도 장간애자 전량 국산 대체

그동안 전량 수입품에 의존해왔던 전기철도 용 장간애자가 전량 국산 고분자제 장간애자로

대체된다.

철도청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외산 전기철도용 자기제 장간애자 대신에 국산 고분자제 장간애자를 전면 사용키로 했다.

전기철도용 장간애자는 일본등 일부 국가에서 주로 자기제를 생산·공급되어 왔으나 이번에 국산 고분자제 장간애자를 사용함으로써 외화절감은 물론 국내 전기철도 기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고분자제 장간애자는 '98년도에 산악지대의 일부 전철구간에 시험 설치된 바 있다.

철도청은 그동안 제품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가혹한 시험환경 조건에서 성능시험을 했으며

해외 적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번에 전기철도용 장간애자로 채택했다.

이 제품은 중량이 기존 자기제 애자보다 1/3정도로 가볍고 파손·균열이 없기 때문에 시공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 내구연한도 자기제의 1.4배로 수명이 길고 현재 추진중인 경부선 및 충북선 전철화사업 등을 비롯 전국 전철망 확충사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대체 효과와 막대한 예산절감으로 철도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기철도 관련업체의 국산화 개발의지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